

홍부와 놀부

때: 옛날

곳: 어느 곳

나오는 사람들

홍부와 홍부 아내

놀부와 놀부 아내

복동 (홍부 아들)

길순 (홍부 딸)

제비들 1~6

진주의 정 1~6

파란 구슬의 정 1~6

황금의 정 1~6

도깨비 1~6

무대: 홍부의 집이다. 왼쪽이 사립문이고 오른쪽이 집이다.

다음 합창과 더불어 막이 열린다.

합창 1

옛날 옛적 어느 골 어느 마을에

홍부 놀부 두 형제 살았더라나

동생 홍부 마음 좋다 소문 났지만

형님 놀부 구두쇠로 이름 났었지

놀부 형의 욕심이 태산 같아서

부모님이 물려준 논밭 모두를

혼자 혼자 제 혼자 가로 쳤다나

합창에 이어 막이 오르면 제비들, 다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제비들의 노래 2

우리 우리 홍부님 마음씨 고와

홍부님 처마에 집을 짓고서

무더운 여름 가고 늦가을 되면
강남으로 강남에 날아 갈래요.

홍부님 홍부님 기다리세요
무더운 여름 가면 가을 오듯이
어두운 밤이 새면 새벽 밝듯이
가난하다 슬퍼말고 참아보세요.

아까부터 사립문쪽에 나타나서 제비들의 춤을 보고 있던 홍부, 집안으로 들어온다.

홍부: 고맙다, 제비들아

첫째: 보고 계셨군요?

홍부: 하지만,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셋째: 가난은 죄가 아니래요.

제비들: 그럼요.

홍부: 고맙다, 제비들아!

네째: 홍부 아저씨, 우리 노래 들으셨잖아요. 무더운 여름 가면 가을 오듯이,
어두운 밤이 새면 새벽이 밝듯이 가난하다 슬퍼말고 참으세요.

제비들: 참으세요!

홍부: 오냐 오냐, 참고 말고.

다섯째: 그런데 아저씨.

홍부: 왜 그러느냐?

다섯째: 복동이와 길순이는 어디 갔지요?

홍부: 심부름 좀 보냈다.

다섯째: 어디요?

홍부: 그건 저 저---

여섯째: 말씀 않으셔도 다 알고 있어요.

홍부: 너희들 보기 부끄럽구나.

여섯째: 괜찮아요.

제비들; 괜찮아요.

제비들, 다시 노래2의 2절을 부를 때, 홍부,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한다. 복동이와 길순이 ‘아버지, 아버지!’라고 소리치며 달려 들어온다. 뒤따라 놀부, 달려 들어온다. 제비들 한쪽으로 피해 선다.

아이들: (아버지 뒤에 숨어 오돌오돌 떨며) 큰아버지 잘못했어요.
 놀부: (고래 고래 소리 지르며) 에이 쓸개 빠진 놈아. 지금이 어느 때라고 쪽박을 들려 내 집에 보내냐? 응.
 흥부: 애들이 하도 배고파 하기에 ---
 놀부: 그래, 이런 흉년에 배 고프는 사람이 네 놈들 뿐이냐?
 흥부: 잘못했어요, 형님.
 놀부: (제비들을 보고) 흥, 자식새끼들은 쪽박을 들려 동냥 보내놓고 넌 그래, 저런 제비새끼들 하고 어울려 히히덕거리려?
 흥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놀부: 그래, 네 놈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서성거리고 있는 제비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아니, 이것들이 날아가지 않고서 누구 약을 올리나.
 첫째: 애들아, 우리 벌레 잡으러 가자.
 제비들: 그래 그래!
 제비들, 사라지며 노래 부른다.

노래 3

정말 정말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네
 혼자 혼자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고래 고래 고래고함 지르고 있네.

놀부: (사립문쪽으로 달려가 제비들이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며) 아니, 저것들이? --- 어디 두고 봐, 내 손에 잡히는 날엔 --- (되돌아 와 흥부에게 지팡이로 샷대질을 하며) 아아니, 이 놈아. 네 놈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냐? 응.
 흥부: 원수 지다니요?
 놀부: 그래, 네 놈과 네 여편네가 번갈아가며 내집 문턱이 닳도록 동냥오더니, 이젠 쥐새끼 같은 자식들까지 쪽박을 들려 보내?
 흥부: 갈 데라곤 형님 집 밖에 더 있습니까? 형님.
 놀부: 형님? 듣기 싫다 이 놈!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흥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놀부: 그 형님이란 말을 빼라니까 자꾸 내 속을 뒤집어 놓네.
 흥부: 형님, 참으시고 건너가십시오.
 놀부: 그래, 간다 이 놈아. 내가 여기 살 줄 알았냐?
 흥부: 그렇게 언짢으시면 쉬었다 가지죠.
 놀부: 싫다 이 놈아! 날 여기 묶어놓고 쌀가마 저 오라고 떼 쓰려고? (사립문 쪽으로 나가며) 다시는 내 눈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 (들어오는 흥부

아내와 마주친다.)

홍부 아내: 시숙님 오셨어요?

놀부: (홍부 아내 손에 들린 바가지를 보고) 흥, 꼴 좋다. 이제 줄줄이 떼거지로 나섰군 그래.

홍부 아내: 이뿐이 집에서 쌀보리 한 되 갖다 먹으라기에---

놀부: 그래, 줄줄이 떼거지로 나서서 내 망신 실컷 시키라고. 시켜!

홍부 아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시숙님!

놀부: (홍부 아내 손에 들린 바가지를 내리치며) 아니, 이렇게 쪽박을 들고 나섰는데도 내 망신 안 시켜?

바가지가 뜰에 뒹굴어, 보리쌀이 흩어진다. 놀부, 급히 사라진다.

홍부: (아내에게 다가가며) 여보.

홍부 아이들: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엄마.

홍부 아내: (울면서) 그저 죽어야지.

홍부: 여보 참아요. 우리가 가난한 탓이지, 형님을 탓할 수 없잖소.

복동: 큰아버지가 우리 바가지도 밟아 버렸단 말이야.

홍부 아내: 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했는데 --- (마루에 주저 앉는다.)

홍부: 복동아 길순아, 보리를 주워 담아라!

홍부 아이들: 예 !

홍부: 여보, 내 가서 내일 품삯 들 데 있나 알아보고 오겠소.

홍부 아내: 빨리 돌아와요. 뭍은 보리죽이나마 뱃속을 채워야 하지 않아요.

홍부: 내 걱정 말고 아이들이나 끓여 주오.

홍부 밖으로 나가고, 아내 부엌으로 사라진다. 아이들은 뜰에서 보리를 줍고 있다. 제비들, 나타나 보리를 주워 주며 노래를 부른다.

노래 4

양칼 양칼 놀부형 심술 지팡이

보리 보리 쌀보리 흩어 놓았다.

동냥은 주지 않고 심술 부리고

동냥은 주지 않고 쪽박 켜구나.

<불이 꺼진다>

2장

1장과 같은 무대이다. 초가을의 저녁 무렵. 다음과 같은 합창과 더불어 막 열린다.

합창 5

산에 산에 단풍이 물든 가을에
제비들은 놀부 밭에 날아 갔다가
숨어있던 놀부에게 들켰다나요
심술꾼 놀부가 달려 들어서
새끼 제비 다리를 꺾어 버렸대.

복동이와 길순이,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온다.

홍부 아이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홍부 아내: (부엌에서 나오며) 왜 그러느냐?

복동: 새끼 제비가.

홍부 아내: 새끼 제비가 어쨌단 거야?

길순: 큰 아버지 밭에 갔다가 ---.

복동: (울면서) 큰아버지에게 붙잡혔단 말예요.

홍부 아내: 그래서?

길순: 큰아버지에게 붙잡힌 새끼제비의 (울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홍부 아내: 다리가 부러져?

길순: 큰아버지가 부러뜨렸단 말예요.

홍부 아내: 뭐라고?

복동: 그래서 다른 제비들이 데리고 온단 말이야.

홍부 아내: 이 일을 어찌나, 너의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제비들, 여섯째 제비를 들춰업고 나타난다.

홍부 아내: (여섯째 제비를 안아 마루에 눕히며) 이 일을 어찌나?

길순: 엄마, 빨리 약을 발라요.

홍부 아내: 글썄 엄두가 안 나는구나!

홍부: (괘이를 메고 달려 들어오며) 어떻게 된 일이나? 밭에서 보니까 제비
한 마리를 들춰 업고 가던데---

홍부 아내: 여보 어서 와요.

복동: 큰아버지가 여섯째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이야.

홍부: 뭣이? 다리를 ---- 왜?

길순: 큰아버지 밭에 갔다가 잡혔단 말이야.

홍부: 저런. (여섯째 제비의 다리를 보며) 이거 야단 났네 (아내에게) 여보,
된장 좀 떠와요.

홍부 아내: (부엌으로 사라진다.)

길순: 아버지, 새끼제비 꼭 살려줘요, 네.

홍부: 그래!

제비들: 살려주세요.

홍부: 그래, 걱정 말아!

홍부 아내, 부엌에서 된장을 떠온다. 홍부가 제비의 상처에다 된장을 바르고 치료하는 사이 제비들, 무릎을 꿇고 기도의 노래를 한다.

노래 6

하느님 하느님 도와 주세요.

가엾은 여섯째 살려 주세요.

복동: (제비쪽으로 가서) 제비들아, 걱정 말아!

길순: (제비쪽으로 가서) 제비들아, 슬퍼 말아!

노래 7

홍부님 홍부님 부탁이어요

여섯째 다리를 살피 주세요.

홍부: 그래, 그래 알았다..

홍부 아내: 곧 나올 거야.

노래 8

우리를 강남에 돌아가도록

내년 봄 싹트면 돌아오도록

여섯째 다리를 고쳐 주세요.

<불이 꺼집니다.>

3장

무대는 1,2장과 같은 장면이다. 3장은 이듬해 가을이다.

다음과 같은 합창과 더불어 막이 열린다.

합창 9

가을 가고 겨울 지나 다음 초봄에

강남갔던 제비들이 돌아왔다나

강남 제비 박씨를 물고 왔다나

가을도 무르익은 흥부 지붕에
둥글둥글 흰박이 익었다나.

첫째: 흥부 아저씨, 날이 춥기 전에 우린 떠나야겠어요.

흥부: 정말 섭섭하구나. 벌써 늦가을이 됐으니.

아이들: 내년 봄에 꼭 와!

흥부 아내: 고맙다, 제비들아. 저렇게 큰 박을 주렁주렁 열게 해 주어서.

첫째: 그건, 지난 봄에 우리 여섯째를 구해 준 선물인 걸요.

흥부: 그런데 너희들, 우리가 박 타는 걸 보고 떠났으면 해.

세째: 아니어요. 한바다를 건너려면 지금 떠나야 해요.

제비들: 그래요.

흥부: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구나---. 먼 길에 조심들 해라!

네째: 여러분들도 내년 봄까지 편히 계세요.

흥부: (식구들과) 그래.

다섯째: 내년 봄에 우리가 오면 다시 그 땐 멋진 우리 집을 지어 주셔야 해요.

흥부: 그럼,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건 염려 말아!

여섯째: 틀림없이 내년 봄에는 우리들 집이 크게 지어져 있을 거예요.

흥부: (아내와) 그래?

제비들: 그래요. (아이들에게) 안녕!

아이들: 잘 가, 제비들아.

제비들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다가 사라진다.

노래 10

여러분들 안녕히 잘들 계세요

봄 여름 가을 동안 신세 많았죠

지지배배 지지배배 다시 만나요.

흥부가족: 그래, 또 만나자!

노래 11

둥글둥글 흰 박을 켜 보시면

우리들이 한 말을 알게 될 거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안녕히 계세요.

흥부가족: 잘 가 제비들아!

제비들, 사라진다. 흥부 가족들, 사립쪽까지 달려 나가 한참동안 제비들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섰다.

흥부: 여보, 그리고 애들아, 우리 어서 박을 타자!

모두: 그래요.

흥부, 아내와 아이들은 박을 따서 뜰 가운데 읊기고, 흥부는 톱을 가져온다. 이윽고 노래에 맞추어 박을 타기 시작한다.

노래 12

이 박은 타서 뒷박 하고

이 박은 타서 여물박 하고

쓱 쓱 쓱 쓱 톱질하세 톱질하세

이 바가지 복바가지 슬근슬근 톱질하세.

‘ 짹’하며 큰 박이 갈라지면, 박 속에서 우닥 방망이(나무망치)가 나온다. 모두, 눈이 둥그래진다.

흥부: (방망이를 주워들고) 여보, 이거 방망이 아니요?

복동: 아버지, 그거 나무 망치 아네요?

흥부 아내: 이상하네요. 박 속에서 나무 방망이가 나오다니---

흥부: 그러게 말이요.

길순: 아버지, 다른 박을 켜 요, 네.

흥부: 그래 켜 보자.

흥부 가족들, 노래 12를 부르며 다른 박을 탄다. 드디어 ‘ 짹’ 소리와 함께 박이 갈라지면 진주의 정들이 안개에 싸여 나타난다.

흥부가족: 아니?

진주의 정들: 부르셨나이까?

흥부: 너희들은?

진주의 정들: 우리들은 진주의 정이옵니다.

흥부 가족: 진주의 정?

진주의 정들: 또 다른 박을 타 봐요.

흥부 아이들: 아버지, 빨리 타 봐요.

흥부: 그래, 타 보자!

홍부가족, 노래 12에 맞추어 다른 박을 탈 때, 진주의 정들은 춤을 춘다. 이
 음고 ‘ 짹’하고 박이 갈라지면서 박 속에서 파란 구슬의 정이 나타난다.
 이 때 놀부, 사립쪽에 나타나 집안을 살피며 눈이 휘둥그레진다.

홍부: 너희들은?

파란구슬의 정: 우리들은 파란 구슬의 정이옵니다.

홍부가족: 파란구슬의 정?

홍부: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요?

홍부 아내: (제 팔뚝을 꼬집어 보며) 분명히 꿈이 아니에요.

정들: 또 다른 박을 타보세요.

홍부가족들, 노래 12에 맞추어 정신없이 다른 박을 타자, 황금의 정들이 나
타난다.

황금의 정들: 부르셨나이까? 우리는 황금의 정이옵니다.

홍부가족: 황금의 정?

황금의 정들: 그렇습니다.

홍부: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이 박 속에서?

진주의 정1: 우린, 먼 남쪽나라 강남궁전의 여왕님이 보낸 진주의 정!

진주의 정들: 진주의 정!

파란구슬의 정1: 우리는 파란 구슬의 정!

황금의 정1: 우리는 황금의 정!

홍부: 그런데 여긴 왜?

진주2: 우리 강남제비를 구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파란2: 착한 홍부님 가족을 돕기 위해 ---.

황금2: 홍부님 가족의 시녀가 되기 위해!

진주3: 박씨에 담겨!

진주들: 박씨에 담겨!

파란3: 제비들에게 물려!

파란들: 제비들에게 물려!

황금3: 바다를 건너!

황금들: 바다를 건너!

정들: 왔나이다.

홍부: 아, 고마운 제비들!

진주4: 첫째 박속에서 나온 그 우닥방망이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진주5: 명령을 내리시면---.
과란5: 명령을 내리시면 ---.
과란들: 과란 구슬이 쏟아지고.
황금1: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황금5: 명령을 내리시면 ---.
황금들: 금돈이 쏟아지고---.
홍부: (방망이를 훑어보며) 이 방망이로?
정들: 어서 명령하세요.

놀부, 참다 못해 달려 들어와 홍부의 손에서 우닥방망이를 빼앗으려다 미끄러져 켜지 않은 다른 박에 쓰러지자, ‘ 짹’하며 박이 갈라지면서 도깨비들이 나타난다.

도깨비1: 이놈, 놀부야. 여기는 무엇하러 왔느냐!
놀부: 박타는 구경하러 왔어요.
도깨비2: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박을 빼앗으러 왔지?
놀부: 아닙니다.
도깨비3: 그래도 네 검은 뱃속을 감추고 있구나.
놀부: 아닙니다요.
도깨비4: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데.
도깨비5: 우리 강남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서
도깨비6: 그 주제에 동생의 박까지 빼앗으러 들어?
놀부: 아닙니다.
도깨비1: 안 되겠다. 자기 잘못을 감추는 이 놀부를 혼내 주자!
도깨비들: 혼내 주자!

도깨비들, 놀부를 막 때린다.

놀부: 아이구 나 죽는다. 홍부야, 이 형을 살려다오.
홍부: (우닥방망이를 든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형님, 형님!
놀부: 홍부야 나 죽어! 이 형을 살려 줘, 홍부야!
복동: 아버지, 그 우닥방망이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길순: 그래요, 아버지.
홍부 아내: 어서요.
홍부: 그렇지 (우닥방망이를 휘두르며) 도깨비들아 물러가라!

홍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들, 연기에 싸여 사라진다. 엉덩이를 하늘로 추켜 올리고 땅에다 얼굴을 파묻은 놀부 오돌오돌 떨기만 한다.

홍부: (놀부에게 달려가서) 형님, 일어나십시오.

놀부: 홍부야, 그 도깨비들 갔냐?

홍부: (아내와) 일어나세요!

홍부 아이들: 큰아버지, 도깨비들은 갔어요.

놀부: (부시시 일어나며) 정말이냐?

홍부: 갔어요. 일어나십시오.

정들: (한바탕 웃는다.)

놀부: (부끄러워 한동안 말이 없다가 홍부에게) 홍부야, 이만하다. 이 형이 잘 못했다.

홍부: 괜찮아요 형님. --- 이제 우리 형제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놀부: 하지만, 나야 무슨 낮짜므로 ---.

홍부: 아닙니다. 형님.

진주5: 이제 저희들에게 명령하세요.

파란6: 명령을 기다리겠어요.

황금7: 명령을 내리세요.

정들: 명령하세요.

아이들: 아버지 빨리요.

홍부: (우닥방망이를 추켜 올리며) 진주시녀야, 파란구슬의 정들아, 황금의 시녀들아, 진주와 구슬 그리고 금돈을 쏟아다오.

정들, 다음 노래에 낮추어 춤을 추면서 진주와 파란구슬 기리고 금돈을 쏟아낸다. 홍부가족들, 미친듯이 진주와 구슬 그리고 금돈을 박속에 주워 담는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놀부도 멋지게 주워 담는다.

노래 13

진주들: 명령이 내렸도다 진주야 쏟아져라

구슬들: 명령이 내리셨다 구슬아 쏟아져라

황금들: 명령이 내리셨다 금돈아 쏟아져라

정들: 착하신분 홍부님이 우리 제비 구하셔서 강남궁전 여왕님이 우리들을 보내셨네

착한이 홍부집에 진주진주 쌓이어라 인정많은 홍부집에 파란구슬 쌓이어라.

어진이 홍부집에 황금 금돈 소복소복 쌓이고 쌓이어서 부자부자 되시어라.

노래와 춤이 한창일 때 막이 내린다.